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찬란하얏텔·나누리 PSD 유나텔 :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경제2000-903

수 신 공정거래위원회

발 신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담당 박근용 간사, pec@pspd.org 723-5052)

제 목 삼성전자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 요청

날 짜 2000. 9. 18. (총 2 쪽)

삼성전자의 서울통신기술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주)와 서울통신기술(주)간의 거래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어 귀 위원회가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삼성전자와 서울통신기술(주)간의 관계와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7년 대규모기업집단 삼성의 계열사로 편입된 서울통신기술은 99년에 Home Network(H/N) 사업관련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삼성전자로부터 양도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서울통신기술의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1,023 여억 원인 바 이는 99년도 서울통신기술의 매출총액 1,722 여억원의 60%에 달하는 정도로서 두 기업간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그런데 1998년과 1999년 중 삼성전자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H/N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몇 가지 핵심기술을 헐값에 이전하여 서울통신기술에 막대한 이득을 발생시켜주었고 이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에게 재산과 기업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부당지원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삼성전자의 서울통신기술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은 96년 서울통신기술이 삼

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96년 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재용씨가 98년말 기준 50.67%의 지분을 보유하여 서울통신기술의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에서 서울통신기술이 이재용씨에게 적당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주어 특수관계인과 부당내부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H/N사업 등의 양수와 97년 삼성계열사로의 편입을 전후하여 매출액이 96년의 689여 억원에서 급증하여 97년에는 1,068여 억원, 99년에는 1,722여 억원에 달한 사실도 삼성전자와 서울통신기술간의 부당지원행위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가 이러한 사실관계와 의혹점에 대해 확인하여 투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